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 1999년도 표어 ◎

“우리를 고치시는 그리스도”(마8:7)

◎ 4대 실천강령 ◎

- 1. 은혜 주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먼저 회개한다.
- 2. 고치시는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서로 위로한다.
- 3. 보혜사 성령님을 바라보고 모든 것을 바친다.
- 4.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린다.

발행인: 이종윤 발행처: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737-3 전화 (02) 517-7651 ~ 5 팩스 (02) 512-1225 http://seoulchurch.or.kr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99열린 바자 이번 주 개최

전자제품 · 농수산물 · 의류 · 서적 등 다양 수익금은 모두 새 예배당 건축에 사용키로

물품을 구입할 계획을 가진 분들은 수요일까지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가물품에서부터 1천원 이하의 저가품, 전자제품에서 참기름에 이르기까지 가히 없는 게 없을 것 같은 다양한 물품을 전시 판매하는 시장이 서울교회당에 들어서기 때문이다.

해마다 성도들과 지역 주민들의 열띤 관심과 참여 속에 개최되는 열린바자가 올해도 6일(수)부터 8일(금)까지 3일간 서울교회당에서 열린다. 개장 시간은 첫날인 6일은 수요일 1부 예배를 드린 후 오후 12시 30분부터 저녁 7시까지, 7일(목)은 오전 10시부터 저녁 7시까지, 마지막날인 8일(금)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목적을 겸하는 이번 바자는 본 교회 성도들이 기증한 물품 및 위탁 판매 등 방식으로 각종 제품을 전시 판매한다. 바자에 판매되는 물품은 음식부터 전자제품, 농수산물, 의류, 미술품, 잡화 등 거의 모든 종류의 신제품과 중고품을 망라하고 있다.

교회당 앞뜰엔 먹거리 장터와 식료품, 농수산물 등 매장이 퍼진다. 산지에서 직송한 신선한 농수산물과 손맛나는 먹거리로 늘 사람들로 북적거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참기름은 본교회 성도가 직접 생산한 수량한정 품목이다.

2층에서는 가전을 비롯 각종 전자 제품과 컴

퓨터, 화장품, 주방용품, 난로 매장이 들어선다. 전자제품 매장에서는 LG 등 국내 제품을 비롯 소니 등 수입제품도 취급한다. 물론 반품이나 A/S도 가능하며 개인뿐 아니라 기업용 제품도 포함되어 있다. 화장품 매장에서는 비오드로가 등 독일제 최고급품 화장품 등 각종 수입 화장품이 총판 가격으로 저렴하게 공급된다.

3층에는 침구/수예품, 가구, 의류, 서적/테이프, 학용품/사무용품, 장난감, 악기, 잡화, 운동기구 등 다양한 제품 매장이 자리잡는다.

4층에는 화랑과 기타 고가 물품 매장이 들어선다. 이곳에는 전광영 화백의 그림 등 각종 미술품과 수석, 액자 등이 전시되며 또 부동산, 회원권, 상품권 등도 취급하고 있다.

음식점을 경영하는 한 가정에서는 10월 7일 매상 전체를 건축 헌금으로 작정하기도 했다.

한편 교회는 바자 기간 전까지 물품 기증을 원하는 관심있는 성도들의 참여를 계속 환영한다.

열린바자 주최측에서는 “열린 행사로 열리는 올해 바자도 주변의 이웃이나 친지 등 누구든지 열린 마음으로 바자에 참석하여 필요한 물품을 구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바자를 통해 서로 친교를 나누고 특히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친숙해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밝히고 있다.

바자 매장안내

장소	취급품목
교회당 앞뜰 (주차공간)	먹거리장터(도토리묵, 만두, 수수전병, 해물파전, 빈대떡, 식혜, 떡볶이, 햄버거, 순대, 오뎅), 식품류(라면, 면치, 갖갈, 과일, 미역, 김, 마늘, 밀반찬, 병·캔음료, 인스턴트식품, 저장식품, 차, 한과, 등), 농수산물/해산물(쌀, 참쌀, 고추, 밀가루, 참깨, 참기름, 오징어, 인삼 등)
2층	LG전자 및 LG-IBM 전제품(냉장고, TV, 청소기 전자렌지, 전기밥솥, 전기장판, 전기난로, 에어컨, 김장독, 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수입제품(소니 캠코더, 월풀 세탁기 등) 화장품(최고급 독일제, 프랑스제 등 수입화장품 등), 주방용품(식기, 세제, 찻잔, 수저, 티스푼, 일회용그릇, 조리기구, 스피타이)
3층	침구/수예품 매장(이불, 방석, 베개, 커튼, 담요, 앞치마 등), 가구(소파, 탁자, 식탁, 책장, 장식장, 침대, 의자, 침대 등), 의류(신사복, 숙녀복, 아동복, 운동복, 티셔츠, 내의, 양말, 티올, 손수건), 서적/테이프(신앙서적, 아동도서, 전집, 사진, 그림책, 성경책, 그림책, 설교·어학 테이프, 각종 단행본, CD 등), 학용품/사무용품(공책, 연필, 크레파스, 물감, 붓, 필통, 신발주머니, 망원경, 책가방, 복사용지 등), 장난감(인형, 놀이기구, 세발자전거 등), 악기(바이올린, 실로폰, 멜로디온, 리듬악기, 기타, 크로마하프, 팬플룻, 리코더, 피아노, 첼로, 피리 등), 잡화(장신구, 구두, 핸드백, 벨트), 운동기구(자전거, 아령, 홀라후프, 배드민턴채, 테니스채, 골프채, 롤러블레이드 등)
4층	화랑(개인소장품, 회화, 도자기, 서예, 조각품, 수석, 차진액자 등), 기타(부동산, 회원권, 주식, 카메라, 상품권, 시계)
옥탑층	먹거리장터(갈비탕, 육개장, 비빔밥, 만두, 국수, 호박죽 등)

비전운동, 사명자대회로

우리 교회는 해마다 개최하는 우리 교회의 비전2020운동을 올해부터 '사명자대회'로 부르기로 했다. 사명자대회는 해마다 교회설립일 50일 전에 선포되어 설립일까지 기도과 전도운동을 전개하는 것이다(관련기사 4면).

한편 전국 교회에서 연중 전개되고 있는 비전2020 운동은 군복음화에 초점을 맞춘 민족복음화 운동이다.

10월 학습·세례식

10월 학습·세례식이 20일(수) I·II부 예배 시 거행된다.

학습자를 위한 교육은 10일(주일) II부 예배 후, 세례자를 위한 교육은 17일(주일) II부 예배 후 새가족부실에서 각각 실시되며 이때 교육을 받지 못한 성도를 위해 18일(월) 오후 7시에 추가교육을 실시한다. 문답은 19일(화) 오후 7시 4층에서 실시한다.

이사야 강해

불순종한 백성

성경공회
교역부
이사야 강해
이종운 목사

이사야 28장 9 - 13절

유대인들도 사마리아인들처럼 술 취하여 방종하고 제사장과 예언자 역시 술 취하므로 직무 수행을 바로 하지 못하며 예언을 잘못하고 이상을 버리며 재판하는 일에 실수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언자와 제사장들은 선지자 이사야의 예언을 조소하고 멸시하는 죄를 지었습니다. 세상에 여러 가지 죄가 있습니다만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이 하는 말을 거역하는 죄는 곧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으로 대단히 무서운 죄입니다.

1. 제사장과 예언자들이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했다

유대의 제사장과 예언들은 이사야의 예언은 지극히 유치하며 명색이 제사장이고 예언자인 자기들에게 함부로 하나님의 징벌을 외치고 있으니 건방지다고 합니다. 반복되는 교훈과 경고의 말들은 자기들에게는 맞지 않는 예언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긴박한 시기에 선포된 이사야의 예언을 조롱한 것입니다. 그러나 진리는 반복되어 가르쳐야 합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므로 저희가 순종하지 아니 할 때는 같은 말을 되풀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잠 15:32, 12:15). 제사장들과 예언자들에게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 멸시를 당하므로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바로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2. 오늘날도 하나님의 말씀은 조롱당한다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자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고 때로는 말씀을 토해 내거나 말씀에 트집을 잡곤 합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싫어하는 이유는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미련한 사람이 미련한 방법으로 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런 사람과 그런 길을 택하시어 하십니다(고전 2:14). 그러나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어리석게 보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설교를 듣기 싫어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설교하는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설교는 설교하는 사람의 신앙 인격과 말씀이 비례하여 전달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들을 잘 받들면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은혜로운 말씀을 주십니다.

사람들이 또 설교를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교만하여 설교를 들으면서 자기 논리대로 말씀을 분해하며 틀린 것만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또 다른

말씀이 너희의 안식과 평안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말씀이 평안과 복락이 됩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같은 하나님의 제안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유대 민족을 징벌 하셨습니다.

(3)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된

“그들이 이르기를 그가 누구에게 지식을 가르치며 누구에게 도를 전하여 깨닫게 하려는가 깃 멀어져 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하는도다 그러므로 더듬는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그가 이 백성에게 말씀하시리라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례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사 28:9-13)

이종운 목사



이유는 사람들이 외식하는 까닭에 마음문이 닫힌 경우와 교만한 까닭에 귀가 막힌 연고입니다(딤후 3:6, 딤후 4:3-4). 사람들은 죄를 중히 진 까닭에 또 허탄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토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을 것입니다.

3. 선지자의 말씀을 조롱한 자가 받는 징계

설교자 자신의 과오나 인격의 부족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토해지는 경우도 있으나 옳은 말씀이 거듭 되어 선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절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에게는 하나님 앞에서 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1) 알아 듣지 못할 말을 듣게 될 것이다(11절).

이것은 알아듣지 못할 이방 나라 곧 바벨론과 같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이상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끊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가장 큰 저주는 우리의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때를 따라서 들려진다는 것은 큰 복입니다.

(2)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이 없다
하나님은 유대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다(13절)

하나님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유대에게 앗수르를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고역을 당하도록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시는 분이십니다(시 18:26).

프랑스 왕 Charles 9세는 종교개혁 이후에 개신교인을 많이 죽여서 피를 흘리게 하고 많은 순교자를 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자신은 말년에 몸 속에 혈관이 터져서 피가 멈추지 않는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겠지만 하나님은 이와 같이 피 흘린 자는 결국 피로 인하여 죽게 하십니다.

또 하만은 유대인들을 학살하며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세운 장대에 자신의 목이 달려 죽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사야를 통하여 들려지던 하나님의 말씀을 조소했는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가다가 뒤로 넘어지며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의 말씀처럼 앗수르 사람들에 의해서 포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겨야 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할뿐만 아니라 복으로 여겨야 합니다.

전교인 성경암송대회

내달 5일, 7일

예선

“가장 분량이 긴 시편 119편 암송에 도전합시다!”

교회설립 8주년 기념 전교인 성경암송대회가 11월 5일(금)과 7일(주일) 부서별 예선을 필두로 시작되어 결선일인 11월 12일까지 진행된다.

예선은 전체 부서를 2개 그룹으로 나눠 11월 5일과 7일 각각 치러진다.

11월 5일(금) 오후 7시부터 실시되는 예선은 장년부와 소망부 그리고 각부 교사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3개조로 나눠 실시된다. 장소는 교회당 1·3·4층.

11월 7일(주일)에 있을 예선은 각 교회학교별로 실시되며 각 부서별로 1-2명씩 선발하게 된다.

한편 유아부와 유치부 학생은 특별조로 편성되어 외운 분량만큼 암송하면 된다.

예선의 심사위원은 각 부서별로 선정토록 하며 심사 기준은 정확도와 태도 그리고 반응도에 각각 50점, 30점, 20점의 가중치를 두게 된다.

본선 및 결선은 11월 12일(금)에 실시된다.

결선에서는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각 1명씩을 선발하며 완송자 전원에게는 장려상이 수여된다.

입상자에 대한 시상과 발표는 11월 14일(주일) 찬양예배 시 있을 예정이다.

구분	일시	장소	선발인원
예선	장년교사 11월 5일(금) 오후 7시	1·3·4층 예배실	*장년은 3개조(추첨으로 편성)중 조별 2명씩(6명)
	교회학교 학생 11월 7일(주일) 각 부서 집회시간	교회학교 집회장소	*교회학교 학생은 각 부서별로 1-2명씩(총 12명)
본선	11월 12일(금) 오후 7시	1·2층 예배실	1조: 유년부, 초·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2조: 장년부, 소망부, 각부 교사 (각 조 2명씩 총 4명 결선 진출) 특별조: 유아, 유치부
결선	11월 12일(금) 오후 8시	1층 예배실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카메룬의 평화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문형숙 선교사(카메룬)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님들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카메룬의 행정 수도 야운데에 도착했습니다.

그동안 신학생들과 한두명씩 만나며 이들의 큰 기대에 부담을 느끼면서 틈틈히 도서실 일 시작하고 다음주부터는 전도자 과정에서 며칠간 방법론을 가르치게 됩니다. 이들은 고등 교육을 받지 못했지만 주님의 은혜에 감동하여 중인이 되기를 결심하고 이미 지역교회에서 충실함을 나타낸 일꾼들로 금년부터 시작할 코스입니다. 지원자 6명을 면담하면서 피그미족을 전도하는 한 형제의 진지함에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자본주의 세계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우리들에게 아프리카는 물질적으로 험벗은듯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큰 소망이 있습니다. 이들이 힘차고 간절한 찬양을 드리는 모습을 보노라면 천사들이 부러워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현재 건축 중에 있는 신학교 내에 있을 예정으로 당분간 한국 선교사님 댁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한 청년회 담당집사님으로부터 “우리 카메룬을 돕기 위해 오신 당신의 회생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라는 메모와 함께 적어준 “하나님이 불의치 아니하시 너희 행위의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니라”(히 6:10) 하신 말씀은 이곳 생활의 적응을 조금 힘들어 하던 제게 하늘의 위로였습니다.

오늘은 기쁨을 생산하는 나라에서 석유값이 계속 오르는 것에 화가난 시민들의 데모로 총든 군인들이 나와있는 살벌한 분위기였고 버스라고 불리는 봉고차들과 택시들이 파업을 하여 걸어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운데에는 그나마 버스가 안다시고 택시만 있으므로 평상시에도 교통의 문제가 매우 불편합니다.

카메룬의 정국 안정과 평화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신학교 건축과 (10월 새학기부터 들어갈 수 있도록 건축이 완성되기 위한 재정이 확보 되도록) 현재 200여 권의 장서 밖에 없는 도서관이 최저 기본도서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저를 이곳으로 보내신 주님의 마음을 흠족하게 해 드릴 수있는 종이 되도록 여러분들의 기도 때마다 부족한 종의 이름을 꼭 올려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늘의 큰 상급을 바라보시며 오늘도 선한 싸움에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제는 가슴을 열어야

감자와 김치를 먹어야 할 아이들이 햄버거와 치즈를 먹는다고 해서 걱정하는 이들이 있다.

身土不二, 우리 땅에서 난 농산물을 먹자는 구호를 외면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동질의 것만 모일 때 그것은 부패해진다.

죽음의 병으로 알려진 에이즈 역시 동성 간에 많이 생겨지는 질병이다. 같은 물끼리 모여 있으면 결국 악취나는 폐수가 될 뿐이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뒤늦게 국제화를 부르짖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나 홀로 사는 사회가 아니기에 문제는 항상 있게 마련이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독단을 피하고 여러 사람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개진하여 중지를 모을 때 발전이 있는 것이다.

인간은 전능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남북의 문제도 민족애에 호소하기 보다는 더불어 사는 사회를 지향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여러 개의 물줄기를 흡수한 큰 강물처럼 세계인으로 이제는 가슴을 열자.

지금까지 접수된 바자 기증품 (10월 1일 현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1	전자제품(LG가전, LG IBM컴퓨터, 소나, 윙풍 등)	오정수·이영희(1교구)
2	수입화장품 전제품(비오드르가 샴스시, 닥터리노 등)	신용식·김신영(10교구)
3	사무용복사용지 200상자	박두호·한성옥(7교구)
4	양말(아도니스) 전제품	정병무·박경희(2교구)
5	라면 100상자, 그림(가덕도) 1점	윤봉준·김명희(9교구)
6	도자기3점, 선풍기 2대	박철훈·이경희(11교구)
7	밀가루 50포	민순구·이영희(6교구)
8	티셔츠(지오다노) 300점	이강인·허숙(11교구)
9	상품권(200만원) 1매	최정환·윤금자(1교구)
10	가족 상하의 1벌	박춘자(1교구)
11	믹서기 1대	황보추자(7교구)
12	의류 30착	윤운식·함은희(7교구)

접수번호	출품내역	기증자(교구)
13	의류 2벌	이정숙(11교구)
14	표고버섯가루	김재술(4교구)
15	의류 3벌, 가방 1개	임훈규·정경자(4교구)
16	예배상(床) 100개	이양철·김미향(11교구)
17	현금(60만원)	2부현금위원 일동
18	양복 1벌	송민선(청년부)
19	참깨 1포, 참기름	조철기(4교구)
20	알미뉴 액자 50개	홍일성·이명아(7교구)
21	가스스토브 10대	탁경준·최정옥(5교구)
22	운동복 1벌, 구두 2켤레	김유정(2교구)
23	남자정장 2벌, 의류 8점	이경진·이종석(4교구)
24	스키장비1세트, 매트세트 1조, 카펫트 1점	오광환·이인순(12교구)
25	음식점 만만나 10월 7일 매상 전체	이찬호·최정순(3교구)

(다음호에 계속)

'99 사명자대회 조직

대회장 이종윤 목사
지도 정윤돈 목사
본부장 박철훈 장로

기획참모부

◇부장:김광신 ◇차장:이번생
 ◇실행위원:오광환 허 숙 우지원 유명석
 안인호 이은옥
 ◇참모부원:이원형 이대원 김인수 광동회
 이우상 이은희 김윤자 나가태

전도참모부

◇부장:최종시 ◇차장:조정식
 ◇실행위원:이해순 김세재 주경자 이관규
 이상호 탁경준 조선영
 ◇참모부원:윤찬오 장 덕 이동만 최차순
 우상태 김재술 박병수 전수자 조춘택
 광 숙 임희춘 남선교회장 여전도회장

동원참모부

◇부장:정병무 ◇차장:홍성주
 ◇실행위원:최일춘 백수남 박정수
 ◇참모부원:한주찬 허상한 정동호 박미혜
 김정란 최정희 제오복 최영란 김선영
 허숙 오승민 교구장 지역장 부지역장
 다락방장

예배참모부

◇부장:노문환 ◇차장:오형철
 ◇실행위원:이계홍 서준식 이자혁 허상한
 김남옥

◇참모부원:박두영 조철기 김시환 오민세
 홍일성 정호진 홍정선 김관홍 홍광엽
 김재조 김남옥 대학부·청년부 회원

찬양참모부

◇부장:이영기 ◇차장:이태상
 ◇실행위원:오승민 신용식 황정임
 ◇참모부원:임훈규 맹선재 이태원 김금준
 박성현 김상옥 박태희 이보우 각 찬양
 대장·부대장

홍보참모부

◇부장:김태기 ◇차장:최형열
 ◇실행위원:이기홍 문형미 김규태 정동호
 한정아 이동혁 신동기
 ◇참모부원:전기섭 이운진 김현정 원영애
 오규자 교회학교 각부 교사

봉사참모부

◇부장:박두호 ◇차장:이영자
 ◇실행위원:박정순 박경희 최영란 한길동
 고영철
 ◇참모부원:김영주 박두영 이남성 이승우
 김대웅 김윤섭 장양일 위성남 이경구
 권오준 김정희 이영숙 김숙자 박분옥
 송숙영 최재춘 이관모

시설참모부

◇부장:김영준 ◇차장:이복규
 ◇실행위원:최용걸 양인수 최재규 송인권
 ◇참모부원:임옥균 이인근 홍한규 황노전

친기성 김성준 이강인

재정참모부

◇부장:오정수 ◇차장:오광환
 ◇실행위원:오유식 최양진
 ◇참모부원:조원장 고윤화 손태기 안창휘
 김승현 유현석 정무균

■ 동정 ■

- * 이종윤 목사는 5일(화) 여전도회 전국연합회 제 17회 선교대회에서 특강한다.
- * 전광영 집사는 5일(화) - 15일(금)까지 청담동 박여숙화랑(☎ 544-7393)에서 개인전을 연다.
- * 이번 주 식사는 김세재·이운진 집사가 정에서 제공했다.
- * 청년부는 4일(월) 새예배당 건축 위한 기도회 및 현장방문을 한다.

■ 이사 ■

- * 정진균 집사·최선미 성도, 대림동 대림아파트로(☎ 3626-6294)
- * 김용호 집사·한건석 집사, 분당으로(☎ 0342-702-2825)

■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기독교방송(HLKY 98.1MHz) 성서강해
 화요일 오전 5시 35분 ~ 6시
 극동방송(HLKK 1188KHz) 생명은 빛으로
 금요일 오전 9시 ~ 9시30분

서울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새 예배당 건축을 위한 바자를 위해
2. 사명자대회를 위해
3. 선교사들과 그들의 사역을 위해
4. 민족복음화와 세계선교의 산실이 될 예배당 건축을 위해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일 예배	I부 오전 9시
	II부 오전 11시
	III부 오후 2시
찬양 예배	주일 오후 5시
수요 예배	I부 오전 11시
	II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9시
새벽기도회	매일 새벽 5시30분

† 교외약도

